



1954年度 全国教会青年会修養会で

在日韓国基督教宣教70年史シリーズ

在日韓国基督教の歩み・前史 (1)

捕虜・朝鮮人基督者



呉 九 台

在日韓国基督教の歩みを考える時、先ず前史として、豊臣秀吉が朝鮮を侵略して連れて来た捕虜の中から入信した人々がいて、彼らによってカトリックが朝鮮に渡ったことを考えてみたい。

サビエル(一五〇六年一五二一年)が、一五四九年鹿児島に着いて、九州地方を中心に伝道を始め、約一年半のうちに中国に渡る志をいだいて、インドのゴアを経て広東省の上海島に上陸したが、果敢な熱病にかかって47才で没した。

サビエルの死後、多くの宣教師たちが日本に渡って来て、九州から京都にいたるまで、カトリック信者がおおよそ15万名、その中には小西行長をはじめ多くの大名が入信した。

一五九二年四月、豊臣秀吉は大きな野心をいだいて朝鮮を侵略した。その理由は、①自分に反対する大名たち(小西行長等)を戦争へとかりたて、日本66州を支配するの自分に有利にするため。②朝鮮のみならず中国をも影響下に置くためであった。

豊臣秀吉は朝鮮国王に道をあけてくれることを要請したところ、朝鮮国王は明との義理からこれを拒否した。豊臣秀吉はこれをシラキ大名、小西行長を第一陳として、仏教徒である加藤清正を第二陳に、延べ約30万の大軍をもって朝鮮を侵略した。

日本軍は朝鮮人の抵抗にあい約8年間苦戦をしいられ、兵隊の士気は衰える一方であった。キリシタン大名小西行長は部下の士気高揚のため、門司に来ていたセスペデス(一五二一—一六一一年)を従軍宣教師として招いた。従って、セスペデスはキリスト教信者としてははじめて朝鮮の地、熊川を踏んだ。時は一五九三年12月27日であった。小西行長の兵隊も兵隊であったことはさきで、キリシタンとして朝鮮の地を踏んだ最初の人であった。しかし、セスペデスは従軍宣教師であつたため朝鮮人に伝道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その侵略戦争によって日本に連れて来られた捕虜の中に、朱子学者、姜沆(一五六七—一六〇三年)より三度にわたって六(一八八)年——新井白石は彼の弟子である——のような学者、陶磁器の技術者たちが含まれていた。上野焼の元祖尊徳、八千焼と高田焼の元祖は尊徳の長男と三男である。金海の芳仲と熊川の朴平意他22姓の80余名は、薩摩、平戸焼、三平は有田焼のそれぞれ元祖となった。このような人たちは貴族の待遇を受けた。

そして、多くの捕虜たちは、実はキリスト教の信者となるのであつた。グスマンの東方伝道史によれば、当時、捕虜の中で洗礼を受けた者、約七千名といわれており、他に約3万名が洗礼を受けたものと予想される。

ところで、内藤儀輔の報告によれば、この捕虜の中から数千人が朝鮮へ帰ったといわれている。彼らは小西行長や、島原にいた者がほとんどであつた。

その中に、一五九七年、丁酉の捕虜として連れて来られた趙完壁(趙完壁は学問に卓越して信頼されていた。従って一六〇三年より三度にわたって

日本貿易船にのり、安南国(ベトナム)に行き、その地で朝鮮人キリシタン(ゴゴシ)をフイリピンではトマス・コリアに会った。趙完壁は安南国で、国王鄭松の妻(ゴゴシ)から李時光の詩集(芝峰集)を紹介された。

一六〇七年、第一次通信使、呂祐吉といふしに帰国した趙完壁は李時光と親交をもつようになつた。その根拠として李時光の文集の中に、趙完壁の伝記があり、彼に関する記録をたくさんみることが出来るからである。

李時光は一六一〇年、北京に来ていたマテオリッチの天主教義について記しているが、その中に、キリスト教に関する知識をうかがうことが出来る。従って、カトリックが朝鮮に入ってきたのは、マテオリッチの天主教義からであると多くの学者は主張するが、私は日本から入ってきたと確信する。

(東京教会牧師) つづく

全国教会青年会の歩み (1)

李 清 一

全国教会青年会活動の歴史を話す立場として、まず全国青年会活動の歩みを全体を通してみると共に、その活動内容および評価、問題点を合わせて考えながら批判的な眼をもつて振り返ってみよう。

これまで出された青年会史といつた場合、まとまった資料としては三つあります。全協が出したものとしては、一九六四年の修養会ハンドブックの中に「崔秀賢氏が書いたものですが「在日韓国教会で青年が果してきた役割」一九六九年、李仁夏牧師が「燈台」18号に書かれてあるもの、そして一九六一年、青年局から出された「福音」にまとめられた資料です。

この三つの資料を参考にしながら、まず便宜的に「福音」の

中にある全協史の時代区分を参考にして話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によると、

第一期 準備時代(一九〇九年—一九三三年)

第二期 不自由時代(一九三四年—一九四五年)

第三期 全国勉勵青年会連合会時代(一九四五年—一九五二年)

第四期 全国勉勵青年会中央委員会時代(一九五二年—一九六三年)

第五期 全国教会青年協議会(一九六三年—現在)となつています。

第一期準備時代(一九〇九年—一九三三年)

準備時代とありますが、これは青年会設立の準備段階というよりもむしろ、在日韓基督教

会にとつて、教会形成の準備段階といつてよいと思います。

というのは、一九〇七年、在日朝鮮キリスト教青年会(現東京韓国YMCA)が創設され、その会館を借りて現在の東京教会が、一九〇九年に礼拝をはじめます。ここから在日韓基督教教会史がはじまっていく訳です。

一九〇七年に朝鮮YMCA同盟が創設されていく歴史的背景は、日本の韓国への侵略が実質的には、一九〇五年よりにはじまり、その結果として、その頃東京には本國より留学生がふえてきた事情によるものです。

そして、その留学生に対する伝道の為に、東京教会が創設される訳です。これに端を発し、一九一九年には京都教会、一九二三年には北部教会、一九二三

年には大阪教会が形成されていきます。

その中で一九二七年に、本國に宣教師として派遣されていたカナダ長老教会のL・レヤング牧師が帰国途中に日本に立ち寄り、在日同胞の伝道を担っていく様になります。これが現在のカナダ長老教会(PCC)と在日韓基督教教会の出合いとなり、その関係は現在も続いています。

そして、一九三〇年前後にかけて教会は、北は樺太、北海道より、南は九州まで伝道の輪を広げ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

この時期に、青年会運動として特に注目出来るのは、一九三三年、在日朝鮮教会勉勵青年会総会が開かれています。残念ながらこの頃の資料は、私たちの手もとに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

しかし、一九三三年、全国的に勉勵青年会の総会がもたれていくという事は、それ以前より、各教会青年会を軸に地味な活動がなされていたことを物語っています。例えば、京都教

在日韓国基督教 70年写真展開く

在日韓国七十年史の写真展と講演会が、去る一月30日(日)より2月4日(金)、早稲田奉仕園セミナーハウスで開かれた。在日韓国人の苦難と抵抗の70年史というテーマで、総社会局、東京韓国YMCA、RAI、早稲田奉仕園が、共催して行われた。

2月1日、在日韓国基督教の歩みをテーマに、呉九台牧師の講演があつて、一九四一年12月7日、すなわち、日本が世界第

二次大戦に突入する前夜、在日韓国教会の指導者全員が連行され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した。2月2日、在日韓国人の人権運動史と展望というテーマで、崔昌華牧師が講演をした。

2月3日、民族差別との闘いのスライド上映、RAIK主事喪重慶氏による、日立闘争とその後の民族差別撤廃運動についての講演があつた。

この写真展の共催のひとりである早稲田奉仕園はアジアに深い関心とかわりをもち、韓国、東南アジアを訪問し、アジア語学講座として、朝鮮語、中国語、ベトナム語、フィリピン語、マレー語があり、1月中旬に写真展として、中国展、ネパール展が開かれた。

在日韓国人70年史の写真展と講演会の意図は、日本の中のアジアの問題として在日韓国人の諸問題を真にけんに取りくむことが、日本人がアジアの問題を考える場合の出発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ころにあつた。



在日韓国基督教宣教70周年写真展の会場

会青年会の沿革史(一九六一年7月発行)によれば、一九三〇年7月15日に創立総会が開かれ、その活動沿革より少くも、禁酒運動、百人運動、聖書研究、献身礼拝、討論会等

のプログラムが持たれています。そして、一九三四年には、在日朝鮮基督教第一回大会が開催されていますが、青年会の全組織は、それに先立って組織されたわけでは、一つづつ(KCC幹事)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 251-5444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話 大阪(06) 981-2980番
電話 大阪(06) 974-7715番

尾頭センター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姜 南 中

名古屋市中川区尾頭橋通2-16
電話 (052) 331-1222~3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今里2-2-8
電話 (06) 976-4937番

食品・薬品包装業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番(代)

설 교

거룩한 제사

로마서 十二장 一・二절



종교적이고 예배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예배는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의식과 정신은 각 종교에 따라 다른 점이 많으며 같은 종교라도 시대와 풍토와 민족에 따라 상이한 상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배 의식과 정신은 구약시대의 유대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어떤 시대를 물려받은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나 하면 다른 제종교는 그 예배

이 예배의식은 시대를 따라 조금씩 변하여 오기는 했으나 그 근본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보다 신령하고 참되고 순수한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예배의식을 지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을 예배에 반영시켜 기독교 독자적인 예배의식으로 개회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예배의식과 기독교의 예배의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바나바벨론에 잡혀가까지는 에루살렘 성에서 에

여서는 일년에 한번씩 대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위에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죄와 아무 관계없는 양은 죽고 이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린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 주신 것으로 자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으로 단 한번 지성소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공로없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

어 가르쳤고 그 구원을 얻은
로 받은 성도들에게 그 보
답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배와 성도로서의 윤리적인
완에 이바지할 것을 가르쳤을
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몸
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
한 산제물로 드리시오」라고
말씀하고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였읍니다. 자기의
전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
양하고 자기 죄에 대한 심
작한 회의를 그리스도를 통
해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신
포를 듣고 성령의 위로하시
는 역사를 통해 죄인이나

総会財政局会開催

자신이 몸이 그리스도록 간격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
겨진 자신을 발견하는 그사
건과 그시간이 곧 영적 예
배가 아니겠음니까. 산제사는
형식에 있는것이 아니라 「상
하고 통회하는 마음」(시편 51
· 17)에 있는것입니다. 그것
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
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형
식적인 예배가 많습니다. 예
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
가 많습니니다. 「오늘날의 교회

에서는 속죄의 설교를 듣기
가 힘이든다」라는 말을 자
주 듣고있습니다. 이 신랄한
비판에 겸손하게 인정으로귀
를 기울여야 되는 자질을발
견합니다. 제임스·데니라는신
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에있
어서의 속죄에 대한 설교는
주일마다 거듭해도 결코 많
다고 할수 없다」라고 했습
니다.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
아서 5장 6절에 있는 「예
수 그리스도 안에있는 할례
나 무할례가 무체되는 것이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나라 다짐 사명으로 행하
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하
신 말씀가운데 할례를 현대
교회의 예배로 보고 현대교
회에서 예배가 없어야 된
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예배
는 있으나없으나 그리 중요
한것은 아니고 다만 사명으로
로 행하는 믿음만이 중요하
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배가 있어도 그
만 없어도 그만큼이면 기독
교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
을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임이다. 교회에 모일 아무
근거가 없지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와같은 견해에
찬동하는 분이 계시오나 자
기는 몰라도 남은 권하지말
것입니다. 성서 해석에 차
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는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약한 교단에서 볼때 배후부
익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또「이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
조에 합치하고 비타협적인태

총회財政局에서 지난 2月 3日, KCC에서 열려 다음과 같이 決定을 하였다. (1) 九條伝道所建築募金の件 總會時의 決定되고 적극協力하기로 確認하다. (2) 明石伝道所補助의件 五万円을 補助하기로하다. (3) 補正予算의件 物価引上에 따른 補正予算은 특히 짚지는 아니하나 節約하여 총회시까지 유지하기로하다.	(4) 宣敎自立基金 復活節까지 (4月10日) 全교역자, 장로가 協力하여 達成시키도록 하다. (5) 敎會堂建築金貸付制度의件 外部에서 오는 指定獻金以外는 礼拝堂建築時, 貸付制度를 設置하여 總會의으로 基本財政을 항상 確保할수 있도록하다. (6) 隱退厚生年金의件	(7) 宣敎70周年記念事業을 위한 財政確保의件 任職員會에서 決定한대로 宣敎70周年記念事業을 위하여財政을 確保하는데 우선 금원을 復活節獻金中 三分之一을 負擔하기로。 (8) 特別獻金協力の件 總會收入中 特別獻金은 學金 有志獻金이 中心이나 各교회에서도 特別이 獻金을 爲하여 힘써주도록。
--	---	---

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을 내
친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
겠읍니다. 이 세상의 학부이나
사상이나 주의가 절대적인 것
이 못읍니다. 역사는 하나도
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읍니
다. 「창조는 부리고 고
아침니다」 굶는 것은 말리고
놓는 것은 낮아집니다. 약한 자
는 강하게 되고 강한 자는 낮
아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 무고한 자는 해방하

總會、社會保險加入

우리總會에서는 敎役者厚生을 強化하기 위하여 지난해 社會局이 提案을 냈으므로 共助의 精神으로 積極推進實施하게 되었다

關東地方에서 實施하였다.
우리總會는 基本財政의 미
약으로 敎役者의 隱退後의生
金信煥목사의 母親이 別世

나 사회健康保險加入으로 隱
退後에 厚生年金으로 어느정
도 生活의 保障되게된다.

親 朴昌礼女史가 1月21日午
後3時 卒시되셨으므로 別
하였다.

우리 結末에서 關東地方의 加入하였으나 各地方로 早速히 加入할것의 요망되고있 24日 豊橋敎會에서 牧師의 司式으로 창례식이 豊橋敎會에서 中郡地方에서 牧師의 司式으로 창례식이

은 敎役者의 厚生保障이 中
心이므로 이미 社会健康保障
덕을 칭송하면서 告別式을

“たとえ死の陰の谷
を歩むとも”

(5)

洪 東 根

ある日、日曜日であつたと思
います。妻が教会に向かう私を
呼んでこのように話しました。

一生の間、夫と子供を愛しながら助けるだけであつた妻が、再びたちあがることができない病床で始めて家族の愛と助けを受ける時、それ程満足し、喜んだのであると思ひます。

しかし、このようなすべてのことはまだ、妻が言葉の自由を持つていた時のことであります。末子テウンが一度はこのような回想をしました。「ママがいつも健康であつたとしたら私達はその程ママを愛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いつ我々がママの顔を洗つてやり、その髪を整えてやつたことがあるのか抱いてもちあげては共に歩いた

我々が体験したものは、妻と我々との家族に対して慰めを与えてくれたものは、教会の皆様の愛でありました。妻が人生における基本的な自由を失い、全く孤独と沈黙の中に沈んでしまうまで何と多くの教会の友人達が慰めのカードと花を、そして美しい言葉を送って下さったか知れません。

妻は一生花を愛して玄関と居間をいろんな美しい花で飾って家庭をいつも明るくしてくれました。花をさすりながら喜び、カードをめくりながら感謝致しました。その中でも特別に日曜学校の子供達が送ってくれた花

又は「ゴット・ラウズ・ユー」と書いては各々、十字架を、ハートを、教会を、又妻の顔を描いたのであります。我々はそのすべてを尊いものとして保っています。

妻が彼女の最後の旅路において、毎日のように、友のように親しくしていたのは人間ではなく、テレビでありました。始めて病院から退院した時、教会の女性役員達が、まもなく訪ねてくるであろう孤独と不安を予見したかのように、内密に話しかけた末に、テレビをひとつプレゼントして下さいました。大きく美しいカラーテレビであります。

そして「お母さんにいたい。お母さんのようにあがたい。あの老役員たちにおいきたい」といひながら、すすり泣くのであります。このテレビの中には、このような年をとっていらっしやる教会員の愛が、お母さんの愛のようにしみて喜んでいました。「喜ぶ者と共に喜び、泣く者と共に泣きなさい」(ロマ書12・15)という聖徒の慰めがここにあります。対話と思想を失つてしまったその孤独で悲しい長い昼と夜を、食事と睡眠の間を除いては、ただテレビを方としてすごしてきました。

(つづく)

32回總會에서 社會局이 提案한 社會健康保險加入을 금번 關東地方에서 實施하였다. 우리總會는 基本財政의 米 穀으로 敎役者의 隱退後의 生活保障에 큰지장을 加쳤으나 社會健康保險加入으로 隱退後에 厚生年金으로 어느정도 生活이 保障되게 된다.

우리總會에선 關東地方만이 加入하였으나 各地方別로 迅速히 加入할것이 요망되고있다.

敎役者의 社會健康保險加入은 敎役者의 厚生保障이 中心이므로 이미 社會健康保險에 加入한敎役者(保育團關係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루어
에게 전해지는 결과가 되어
야 하겠읍니다. 마물은
을을 새물계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물계 변
화되는 길은 우리 속에 있
는 사람이 종의 형상으로 구
체적으로 밤에 나타날 때 비
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읍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니
게 드리는 충실과 이웃을 향한
한 소소한 사랑이 십자가에
서 하나로 합해질 때 완전하
드러지는 것입니다. (下 閔 燮
會牧師)

白馬八方尾根スキ一場へ

ロッチ シオン

代表者 李 幸 雄

長野県北安曇郡白馬村みそらの別荘地内
電 話 0 2 6 1 7 - 2 - 4 0 8 4
〈関西案内所〉
奈良県生駒郡斑鳩町南昭和団地290-14
電 話 07457-5-5567・5114

ドライ専門

豊川クリーニング商会

代表者 完 山 禎
(崔 永 峻)

大阪市大淀区本庄中通3-36
電話 06(372)5755

三菱電機ストア

ヨブヤ電気武庫之莊店

代表者李 清 孝

宝塚市南武庫ノ荘一丁目6-13
 電話 06-436-8622
 (スーパーマイショップ前)
 宝塚市川面五丁目12-10
 電話 0797-86-0305
 (スーパータイエー前)

